

# 守國寺 高麗(1239년) 木阿彌陀佛坐像의 研究

## 문 명 대\*

- I. 머리말
- II. 守國寺 木阿彌陀佛坐像의 造成背景
- III. 圖像特徵
- IV. 樣式的 特徵과 編年
- V. 腹藏品の 내용과 特征
- VI. 高麗 後期 彫刻史에서의 의의
- VII. 맺음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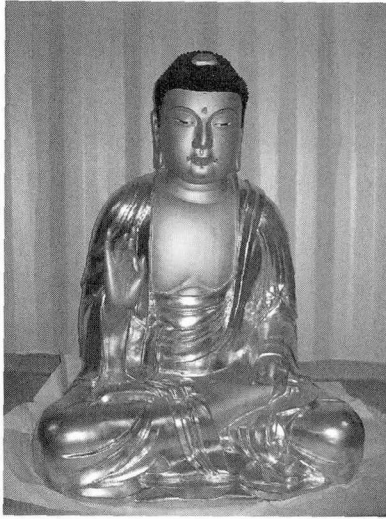
## I. 머리말

서울 은평구 守國寺 대웅전(=金佛殿)에는 木佛像 한 구가 봉안되어 있다<sup>1</sup>. 언제부터 수국사에 봉안되어 있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원래 철원 深源寺에 봉안되었던 불상을 이곳 서울 수국사로 이안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수국사 불상은 나무로 된 목불상인데 복장기에 의하여 1239년경인 고려시대 전반기

---

\* (사)한국미술사연구소 소장, 동국대학교 명예교수



도 1 수국사 목아미타불좌상, 1239년경

에 조성된 아미타불상으로 알려져 있다. 축봉사 목아미타불상 등과 함께 당대(13세기 초 중반기)를 대표할 수 있는 희귀하고 귀중한 목불상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귀중한 수국사 목불상을 우연히 주목하여 조사하는 과정에서 51종 300여 점이나 되는 많은 양의 복장품들을 조사할 수 있었고, 이 불상에 대한 여러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첫째, 수국사 불상의 조성배경을 밝히고자 하며, 둘째, 이 불상의 현상과 도상특징을 논의하고, 셋째, 수국사 불상의 양식적 특징과 그 편년을 복장기와 다른 불상들과 비교해서 밝히고자 하며, 넷째, 이 불상이 가지고 있는 고려시대 조각사에서의 의의를 논의하고자 하는 바이다.

## II. 守國寺 木阿彌陀佛坐像의 造成背景

### 1. 조성기와 중수기를 통해 본 아미타불상 조성

수국사 목아미타불좌상의 복장에서는 改金記, 다라니, 불경, 복장사리기 등 많은 유물이 나왔다. 이들은 거의 대부분 嘉靖 42年 壬戌 八月에 불상 복장을 넣었던 것이다. 壬戌은 42년이 아니라 41년이 맞기 때문에 1562년 8월에 전면적으로 복장을 개비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 복장품을 모두 분석해보면 몇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 목아미타불상이 봉안된 절은 철원 深原寺일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다. 이 불상을 “嘉靖 42年 壬戌”에 개금하면서 여러 가지 복장품을 거의 전면적으로 개비하고 있는데, 가정 41년이 임술년이지만 愼思智발원문 1점 이외에는 개금기나 묵서, 경전 등 모두 “四二年 壬戌”로 적고 있는 것은 誤記라 하겠다. 1562년(嘉靖 41年 壬戌)의 발원문이나 개금기에는 大施主로 愼思智가 등장하는데 사리기인 후령통에 봉안된 향이나 오곡몽치 표지에도 “신사지謹封”이라 쓴 것을 보면 1562년 壬戌 8월 또는 8월 8일에 복장에 납입한 것은 墨書나 경전들이 대부분인데 藥師本願經의 경우 “嘉靖二十年辛丑日江原道鐵原地寶蓋山深原寺”라 한

개관 경위를 판각한 그 뒷장에 “嘉靖四十二年 壬戌八月日 熙暹 施納”이라는 목서가 쓰여 있어서 심원사에서 개관한 약사경을 壬戌年에 심원사 불상 복장에 봉안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地藏菩薩本願經도 같은 비구 희섬이 같은 날 시납하고 있으며, 比丘 能惠는 같은 임술년 8월 8일에 법화경 권 1을 시납하고 있는데 동卷4 千手千眼眞言도 동일한 날에 시납하고 있다. 또한 다른 법화경 2책 7권(1-3卷 1冊, 4-7卷 1冊)은 가정 20년에 심원사에서 개관해서 壬戌年에 불복장품으로 봉안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연경별찬이나 장수멸라경 등을 性仁 비구가 시납하고 있는데 성인은 목서나 직물 등 여러 가지를 시납하고 있다.

이상의 불복장품에서 보면 개금기나 발원문에서는 심원사 불복장이라는 명기는 보이지 않지만 불경이나 목서명에 의하여 심원사 불상 복장일 가능성이 많으며, 전연도 심원사에서 이안했다고 말하고 있다. 深源寺는 강원도 철원군 신서면 寶蓋山에 있었는데 진덕여왕 원년에 靈源祖師가 興林寺로 창건했고 梵日國師가 재창했으며 1392(태조2)년의 화재로 1396년에 무학대사가 3창하면서 심원사로 개명했고, 1907년에는 250여 칸의 건물과 1602구의 불상이 불에 탄 후 1931년에 다시 중수되었다. 그후 6.25전란 이후 비무장지대로 편입되면서 폐사되었는데, 현재는 동송읍 오지리로 이전해서 명맥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다.<sup>1</sup>

원래 보개산 상봉은 환희봉이고 그 허리에 石臺庵이 있고<sup>2</sup> 그 아래 聖主庵, 그리고 그 아래 산록에 심원사가 있었다. 이 산에는 유명한 地藏寺도 있어서 고려시대에는 불교가 융성했던 명산이었던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특히 보개산은 석대암, 지장사, 심원사 등 지장보살과 관련 있는 사찰이 많아 지장신앙의 중심지였던 것으로 이해된다.<sup>3</sup> 특히 王京과 지근 거리에 있어서 왕실 귀족들의 발걸음이 빈번했고 특히 고려 최대의 문벌귀족의 하나였던 철원 최씨 가문의 원찰들이 되어 최씨가문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는 사실은 주목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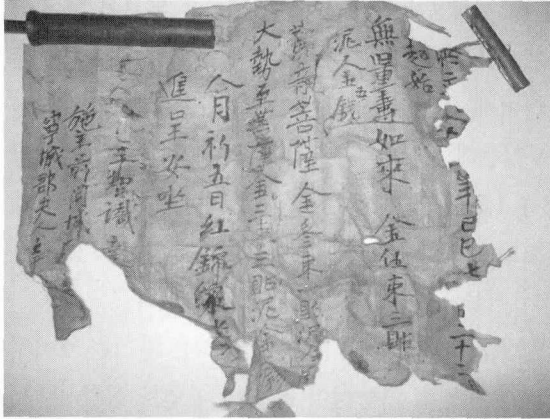
둘째, 그러나 1562년 발원문에 봉화 문공암(?)에서 승려와 신도들이 함께 원한다는 내용이 있어 만약 봉화를 경북 봉화로 볼 경우 조성지 또는 개금지는 봉화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으로 이 점은 좀더 밝혀져야 할 것이다.

셋째, 수국사의 목불상은 洪武改金記와 嘉靖改金記에 의하여 이름이 無量壽如來와 無

<sup>1</sup> 權相老, 『韓國寺刹事典』 上(梨花文化社, 1994. 3), pp.1191-1196.

<sup>2</sup> 이색, 『寶蓋山 石臺庵 地藏殿記』, 『東文選』 卷72 記(민족문화추진회, 1968. 12), pp.695-696.

<sup>3</sup> 이색, 『寶蓋山 地藏寺 重修記』, 『東文選』 卷72 記, pp.667-668 및 『신증동국여지승람』 卷第47, 철원도호부 불우조(민족문화추진회, 1969. 9), p.102 참조.



도 2 수국사 목아미타불좌상 1389년 개금기

量壽佛로 기록되어 있어서 아미타불인 것이 분명하다. 무량수불은 아미타불의 無量光, 無量壽 등 두 성격 중 무량수의 성격에 중점을 둔 부처님으로서 시간적인 성격, 즉 수명이 한량 없다(無量)는 아미타불이다. 이 불상의 조성기가 없어져서 잘 알 수 없지만 조성될 당시에도 무량수불이었다고 생각된다. 1389(洪武 22)년 改金記는 당시 복장에 있었던 것이 분명한 조성기에 無量壽佛이라 기록했을 것이고, 또한 寺中에서는 당시까지 무량수불로 신앙되어 왔을 것이기 때문에 1389년 개금 중수할 때 개금기에 무량수불로 기록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이 불상의 중수관계는 이 개금기들로 분명히 알 수 있다. 이를 우선 개금기로 알아보자.

1) 洪武 22年(1389년) 改金記 도2

洪武二十二年己巳七月二十二日 起始

無量壽如來 金伍束三貼泥金五錢

觀音菩薩金參束一貼泥金二錢

大勢至菩薩金三束三貼泥金二錢

八月初五日 紅錦綵坐子進早安坐

化主 智識幸

施主 開城 寧城郡夫人辛氏

홍무 22년 己巳년 7월 22일에 (개금을) 시작했는데



도 3 수국사 목아미타불좌상 1562년 개금기

무량수여래는 금 5속 3첩에 니금이 5전 들었고  
 관음보살은 금 3속 1첩에 니금 2전이 들었으며  
 대세지보살은 금 3속 3첩에 니금 2전이 들었는데  
 8월 5일에 붉은 비단의 홍금채 방식에 봉안했다.  
 화주는 지식행이고  
 시주는 개성의 영성군부인 신씨이다.

2) 嘉靖 42年(1562년) 改金記 도3

嘉靖四十二年壬戌有  
 西方教主無量壽佛泥金二頓  
 大施主慎思智○○  
 梁氏點伊○○  
 大施主 金守孫  
 施主申順兩主  
 化主 性浩比丘  
 畫員 禪宗參  
 供養主 志○  
 學說閣

가정 42년 임술년

서방교주인 무량수불에 니금 2돈이 들었다.

대시주는 신사지○○와

양씨 접이 ○○이다

대시주는 김수손

시주는 신순양주이고

화주는 성호비구이며

화원은 선종삼이고

공양주는 지○이다.

학설자

이상에서 보이다시피 홍무 22년 개금기에서는 무량수여래와 관음, 세지보살 등 아미타삼존불을 개금했으나 가정 22년 개금기에서는 무량수불 1구만 개금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조선시대인 1562년에는 관음과 세지보살은 유고로 없어졌을 가능성도 있다. 만약 유고되었다면 1393년 화재 때었을 가능성이 짙다. 어쨌든 아미타삼존불로 조성되었지만 현재는 원봉안장소였던 심원사(?)를 떠나 수국사에 아미타본존불만 전해지고 있는 것이다.

고려후기로 알려진 불상은 대개 아미타불상들이다. 1274년작 개운사장 축봉사 목아미타불좌상, 13세기 초·중엽(1280년 보수)의 개심사 아미타불상, 13세기 중엽의 봉림사 목아미타불좌상, 13세기 후반기의 자운사 목아미타불좌상, 심향사 건칠아미타불좌상 등 13세기 불상 5, 6점이나 되며, 14세기 아미타불상으로 민천사 금동아미타불좌상, 1346년작 장곡사 약사불상이나 문수사 금동아미타불좌상, 신암사 금동아미타불좌상, 국립박물관장 금동아미타불좌상같은 20여점 등, 현존하는 13세기-14세기 불상들은 대부분 아미타불상인 점이 주목된다.<sup>4</sup>

철원 심원사는 지장도량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아미타불상을 본존으로 봉안해서 신앙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목아미타삼존상은 심원사 무량수전 본존불로 봉안했을 가능성이 짙다.

셋째, 아미타불상의 조성과 개금 보수한 유래이다. 불상을 조성한 기록은 현재 찾을 수

<sup>4</sup> 문명대, 「고려후기 단아양식 불상의 성립과 전개」, 『高麗·朝鮮 佛敎彫刻史 研究』(예경, 2003. 9), pp.206-242 (제수록).

없지만 조성연대를 추정할 수 있는 다라니 1점과 개금보수기 2점, 개금보수 발원문 1점 등이 남아 있어서 이 불상의 조성과 변화를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먼저 제1차 개금보수기라고 생각되는 홍무 22년 개금기부터 살펴보자. 이 개금기는 약간의 손상을 입었지만 銘文은 알 수 있다. 洪武 22년 己巳년 7월 22일에 개금을 시작했다고 말하고 있다. 홍무 22년은 1389년인데 고려의 마지막 왕인 공양왕 1년에 해당되며 3년 후인 1392년에 신왕조 조선의 천하가 되는 고려 최말 때였다.

무량수여래는 금 5속 3첩에 니금이 5전 들었고  
관음보살은 금 3속 1첩에 니금 2전이 들었으며  
대세지보살은 금 3속 3첩에 니금 2전이 들었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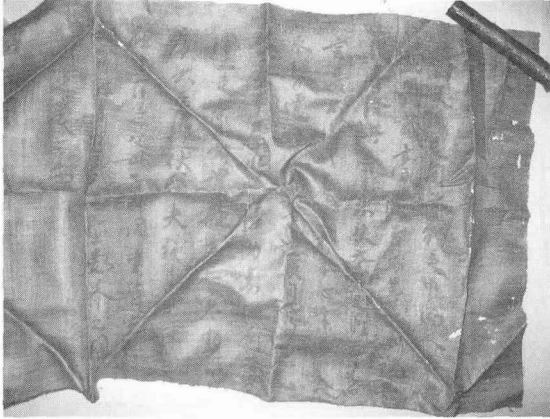
이 소요된 것으로 개금에 든 비용이 정확하게 적혀있는데 관음보살의 니금은 절단되어 알 수 없지만 대세지보살의 예에서 보면 2(二)전이었을 것이다.

그 다음 제2차 개금은 1차 개금 후 173년 후인 선조 15년, 즉 1562년에 된 가정개금기이다. 첫줄에 “가정 42년 임술”이라 했는데 임술년은 가정 41년이고 이 해는 선조 15년인 1562년이다. 이 해에는 개금과 복장 등을 대폭 교체하는 불사가 이루어졌는데 개금기나 복장품 등에 보면 愼思智가 대시주로 불사의 중심이었던 것 같다. 신사지는 1563년 봉상시부정을 지낸 문신 愼思獻(1520-?)과 같은 문중의 인척으로 생각된다. 무량수불의 개금에 니금 2전이 들었다고 되어 있다. 대시주는 신사지와 그의 부인으로 보이는 양씨, 김수손 등이고 시주는 신순 부부인데 모두 일가족으로 보인다. 화주는 성효이고 화원은 선종삼, 공양주는 지○이라고 적고 있다. 어쨌든 1562년인 선조 15년에 이 불상의 복장은 전면적으로 개비된 것으로 생각된다.<sup>5</sup>

### 3) 嘉靖 41年 發願文 도4

嘉靖四十一年壬戌九月日發願文 伏以天陽(壤)之間, 萬物之中, 而人最貴也. 然愚或豪貴者不,

<sup>5</sup> 이 고려불상의 조성 때 조성발원과 1차 개금 때의 발원자 등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2차 개금 때의 발원자는 신사지, 김수손 등이 알려져 있다. 봉상시부정을 지낸 愼思獻과 동일문중의 인척으로 생각된다. 고려 불상의 발원자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서 정리하고 있다. 정은우, 「高麗後期 佛教彫刻研究」(홍익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12), pp.31-44.



도 4 수국사 목아미타불좌상 가정 41년  
발원문, 1562년

何也. 說善從善, 終其善於不失本有之性者, 善也. 言善不從聽善, 失本心, 乘其界者, 永劫不遭, 誰是作也. 吾等願見, 善惡之報應. 于奉化文共庵緇素同願, 西方淨土之方, 不憚晝夜, 不忘寒熱, 以廣大之緣. 伏冀大施主愼思智大 祖宗, 存亡父母, 子孫同生, 皆生淨土, 觀聞法音, 遊戲七寶安養之國者. 俱於愚衷云爾.

가정 41년 임술년 9월 일 발원문(번역)

앞드려 생각하옵건대, 하늘과 땅 사이의 만물 가운데 사람이 가장 귀합니다. 그런데 어리석거나 豪貴한 사람이 같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善을 말하고 善을 좇아서 마침내 그 선으로 본래 가지고 있는 성품을 잃지 않는 것이 선이기 때문입니다. 선을 말하나 선을 듣기를 좇지 않으며, 본심을 잃고 그 세상에 편승하는 사람은 永劫을 만나지 못하니, 어느 누가 (劫을) 마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이 돌아보건대 善인과 惡인은 (각각) 응보를 받기 마련입니다.

봉화 文共庵(?)에서 승려와 신도들이 함께 원하오니, 서방 정토에서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추위와 더위를 잊지 않으며 넓고 큰 인연을 맺어 주옵소서. 앞드려 바라옵건대 대시주 愼思智大祖宗과 살아계시고 돌아가신 父母와 子孫 및 同生들이 모두 정토에 태어나 불법의 소리를 보고 들으며 七寶와 安養의 나라에서 유희하기를 바라옵나이다. 모두 저의 어리석은 마음에서 나왔을 뿐입니다.

이 발원문은 가정 개금기의 제1대 시주인 신사지의 단독 발원문이다.<sup>6</sup> 부모자손들과 함께 정토에 모두 태어나기를 기원하는 발원문이다. 다른 기록들은 임술을 가정 42년이라 오



도 5 崔宗峻 발원 다라니

기하고 있지만 이 발원문만은 가정 41년이라 적고 있어서 가장 정확한 편이다. 또한 앞에 언급했다시피 이 발원문에 봉화 문공암(?)에서 승려와 신도들이 함께 원한다는 내용이 있어서 이 불상이 중수된 장소가 봉화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으로 좀더 깊이 있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 2. 불상조성 후원자(大施主), 최종준, 최영 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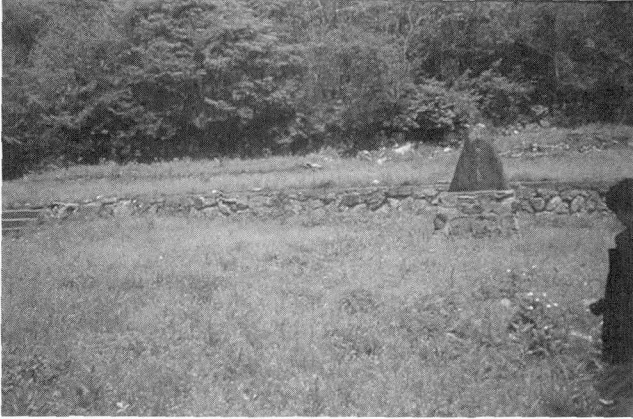
2차의 개금중수기는 불상의 개금중수한 사실을 적고 있을 뿐 불상의 조성기가 발견되지 않아서 언제 불상이 만들어졌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조성연대와 조성시주 등 조성의 역사를 추정할 수 있는 자료 1점을 찾을 수 있었다. 즉 복장 속에 넣은 다라니 중 1매에서 “一切如來全身舍利寶篋真言 己亥十月日侍中崔宗峻”라는 글을 발견하게 되었다도5.

이 내용은 己亥에 侍中 최종준이 공양한다는 뜻인데 기해년이 어느 해가 되는지가 문제이다. 시중연호가 쓰인 예로 보면 1239년이나 1299년으로 보는 것이 적합하지만<sup>7</sup> 시중 최종준의 생몰년이 이를 해결해 준다. 최종준(?-1249)은 고려 고종 때 고관을 역임한 문신이었는데<sup>8</sup> 고려 중기의 저명했던 문신 崔惟清(1095-1174)의 손자이자 崔誥의 아들로 1201년(神

6 초서로 되어 있는 이 발원문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완우 교수의 도움으로 모두 읽게 되었음을 밝혀둔다.

7 고려의 최고관직이자 재상의 통칭으로 사용된 侍中은 1275년에 원의 압력으로 폐지되었다가 1298년에 복원되었고 곧이어 없어졌으나 1362년에 다시 복원되었으므로 壬戌인 1239, 1299, 1359, 1419 등 4개의 연대 가운데 양식과 결부시켜 보면 1239년이나 1299년이 적당할 것 같다.

8 사실 이 불상을 조사할 때는 복장이 있을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고 혹시 조성기 흔적이라도 찾을 수 있다면 다



도 6 深源寺址

宗 4년)에 문과에 급제한 후 1239년 전후 시중을 역임했고 1249년에 돌아간 분이다.<sup>9</sup> 돌아가기 전 최고 관직인 시중을 역임하면서 다라니를 조성하여 이 아미타불상에 봉헌한 것으로 보인다.

최종준에 대해서는 『동국여지승람』 철원도호부 인물조에 자세히 적어놓고 있다. 태조의 공신 최준용, 그의 5대손 최석, 최석의 아들 최유청, 유청의 둘째 아들 최선, 최선의 아들이 최종준이라는 계보를 상세히 밝혀놓고 있는 것이다. 최종준은 고종조에 門下侍中이 되었는데 시중 한결같은 절조로 청렴하게 나라에 봉사한 인물로 묘사되고 있다. 최영 장군은 유청의 증손 최옹의 손자이니 최종준의 증손인 것이다.<sup>10</sup> 최영 장군은 고려 말의 최고 사령관으로 이성계의 반란(위화도 회군)을 저지하지 못하여 고려가 망하게 되었고 최씨 가문도 일거에 몰락하게 되었지만 심원사는 조선시대에도 명찰로 이어졌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최종준은 철원 최씨 가문의 중추적인 인물인데, 철원을 기반으로 한 최씨 가문은 고려 최대의 문벌귀족이었으므로 심원사는 아마도 최씨 가문의 원찰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도6.

이렇게 보면 최종준과 이 불상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나아

---

행이라 생각해서 간단히 조사하고자 했으나 의외로 다량의 복장물이 쏟아져 나와 하루 종일 조사하게 되었고 그 후 몇 차례 더 조사하게 되었다. 많은 분량이어서 다라니의 중요성은 잘 알 수 있었으나 급히 조사한 관계로 崔護로 읽었는데[『수국사 고려 아미타불좌상·불화』(한국미술사연구소, 2006. 4), p.14] 그 후 최성은 교수가 재독하여 崔宗峻으로 바로잡을 수 있었다. 최성은, 「서산 개심사 목조 아미타불좌상과 고려 후기 불교조각」(2006년 12월 조계종 총무원 문화유산 발굴조사단 학술대회 발표요지) 참조.

<sup>9</sup> 『高麗史』 99, 列傳12 崔惟清73 志27 選舉/科目; 『高麗史』 23, 世家23 高宗2 高宗丙午33.

<sup>10</sup> 『新增東國輿地勝覽』 권47, 철원도호부 인물조(민족문화추진회, 1969. 9), pp.103-105 및 二七-二八.

가 이 불상은 고려 최후의 충신 최영 장군의 원불이기도 했을 것이다. 아직 불상 조성기가 발견되지 않아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최종준 내지 최종준과 친근한 철원 최씨 가문 사람들이 불상 조성의 대시주층이었을 가능성이 짙다고 판단된다. 당대 최고의 문중인 최씨 가문에서 이 불상 조성에 크게 기여했다면 이 불상은 고려사 내지 고려 불교미술사 연구에 많은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핵심의 하나로 생각된다.

### III. 圖像特徵

수국사의 아미타삼존불상 가운데 본존 아미타불상만 남아 있다. 이 단독의 불상은 전혀 손상이 없는 완전한 형태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머리는 肉髻가 큼직한 편인데 중간 계주가 높게 솟아 있어서 인상적이며 나발은 작고 촘촘하게 표현되어 있다. 이런 특징은 1274년 작 개운사 목아미타불상과 거의 흡사하며 13세기 중반기의 봉림사 목아미타불상 및 13세기 초중기의 개심사 목아미타불좌상과도 친연성이 있고<sup>8</sup>, 그림으로는 1306년 작 근진미술관장 아미타불화와 친연성이 있는 것이다.<sup>11</sup> 또한 고려 말의 중수기와 조선 전반기의 중수기를 가진 14세기의 불상인 자운사 목아미타불상 또한 이 불상과 친연성이 짙다고 할 수 있다.<sup>12</sup>

얼굴은 큼직하고 직사각형에 가까운 타원형으로 뺨이 통통하고 양감 있는 윤곽은 개심사 불상의 얼굴과 거의 비슷한데 뺨과 턱이 개심사 얼굴보다 더 통통한 것이 다른 점이다. 또한 개운사 아미타상과도 유사하고 반개한 눈과 도톰한 인중, 양감있는 뺨과 턱은 봉림사 아미타상과 유사한 편이다.<sup>13</sup> 이마가 봉림사 상처럼 넓지 않으며 작은 백호가 이마 중앙에 있지 않고 눈썹 사이에 표현된 것과 코가 긴 것은 개운사상과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코는 개운사상 코처럼 코 끝이 뾰족한 매부리코가 아니고, 봉림사상의 코처럼 코 끝이 둥글둥글하지 않으며 곧고 긴 코와 아담한 코 끝 모양은 장곡사 약사불의 코와 친연성이 있다. 이와 유사한 머리와 얼굴형태의 불상은 1313년 작 旻天寺 佛頭이어서 주목된다.

上體는 당당하면서도 건장한 편이고, 어깨가 팽팽하고 볼록하며 U자형으로 터진 가슴

<sup>11</sup> 주4와 같음.

<sup>12</sup> 이분희, 「光州 紫雲寺 木造阿彌陀佛坐像」, 『聖寶』 6호(2004. 12), pp.59-82.

<sup>13</sup> 문명대, 「鳳林寺 목아미타불상」, 『高麗, 朝鮮時代 佛教彫刻史 研究』(2003. 9), pp.198-205(재수록).



도7 수국사 목아미타불좌상, 뒷면



도8 개심사 목아미타불좌상

에 등근 양쪽 젓가슴 사이로 등근 배가 표현되어 있는데, 이런 상체는 개운사장 아미타불상과 친연성이 짙고 봉림사 아미타불상과도 거의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結跏趺坐로 앉아 있는 하체는 오른발이 왼발 위로 올려진 향마좌의 자세인데 양쪽 무릎이 높고 큼직하며 안쪽으로 각을 이루고 있어서 이런 무릎 형태는 역시 봉림사상이나 개운사상과 동일한 것이다.

手印은 오른손을 들어 시무외인을 하고 엄지와 中指를 맞대고 있으며, 왼손은 무릎 위에 올려 엄지와 중지를 맞대고 있는 下品中生印을 짓고 있는데, 왼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형태는 고려 후기 아미타불상 가운데 고산사 소아미타불과 尋香寺 건칠 아미타불상, 특히 고산사상이 가장 유사하며, 봉림사상이나 개운사상 등 대부분의 고려 후기 아미타불상들은 왼손을 가슴 아래까지 올려놓고 있어서 이 불상과 다르다.

通肩衣의 불의는 上衣 위에 大衣를 걸친 二重着衣法인데 오른쪽 어깨 위에 반달형으로 대의가 걸쳐진 점, 왼쪽 어깨의 3가닥 옷주름과 이 옷주름 밑에서 어깨 전체에 걸쳐 내려진 타이트한 10가닥 이상의 옷주름, 이 주름이 팔꿈치 위에서 Ω형을 이룬 주름, 왼 무릎 위에서 아래로 내려진 연잎 모양의 옷자락 등은 13세기 불상인 봉림사상, 개운사상, 심향사상과 거의 비슷한 것이어서 중요시된다<sup>14</sup>.

<sup>14</sup> 문명대, 「고려후기 단아양식의 성립과 전개」, p.217 圖125참조.



도 9 봉림사 목아미타불좌상,  
13세기 중엽경



도 10 개운사 목아미타불좌상, 1274년경

#### IV. 樣式的 特徵과 編年

##### 1. 양식적 특징

수국사장 목아미타불상은 고려 때인 1389년의 개금기 이전에 조성되었다고 판단되는데, 그 시기는 다라니 명문에 언급된 己亥 十月日인 1239년경(1239-1249년 전후) 이후로 추정될 수 있다. 이것은 양식적 특징에서도 분명히 알 수 있다.<sup>15</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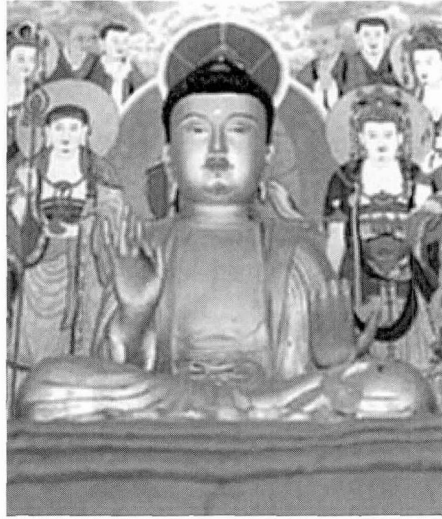
첫째, 구도, 비례에서 살펴보자.

이 수국사 불상의 머리높이:불신높이는 1:2.8이고, 얼굴길이:불신높이는 1:4.3, 무릎너비:불신높이는 1:1.2인데 개운사 아미타불상도10의 비례(1:2.8, 1:4.7, 1:1.2)와 거의 유사하지만 얼굴이 약간 커진 것이 다른 편이고, 봉림사 아미타불상도9의 비례(1:2.8, 1:4.8, 1:1.2)와도 비슷하여 13세기 중·후반기 불상의 비례를 보여준다. 그러나 1326년 작 장곡사

<sup>15</sup> 문명대, 「고려후기 단아양식의 성립과 전개」, pp.206-242 참조.



도 11 자운사 목아미타불좌상, 14세기



도 12 심향사 건칠아미타불좌상, 13세기 후반

약사불상도<sup>13</sup>의 비례인 머리높이:불신높이 1:3, 얼굴길이:불신높이 1:4.6, 무릎너비:불신높이 1:1.3 보다는 건장하여 시대적인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sup>16</sup>

둘째, 형태미의 특징이다. 이 수국사 아미타불상의 형태미는 1346년 작 문수사 아미타상이나 장곡사 약사불상의, 얼굴과 신체 모두 단정하고 고아한, 이른바 단아한 형태와는 다소 다른 봉림사 아미타불상도<sup>9</sup>이나 개운사 아미타불상도<sup>10</sup>과 유사하게 좀더 건장하고 한결 장중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얼굴은 장방형이면서도 풍만한 형태이고, 신체는 건장하고 당당한 어깨와 풍만한 가슴, 볼록한 배와 넓고 높고 듬직한 앉은 형태 등 14세기 중엽 불상보다 장중한 편이다.<sup>17</sup> 특히 이 불상의 얼굴은 13세기 후반기의 봉림사 불상도<sup>9</sup>이나 1274년의 개운사불상도<sup>10</sup> 얼굴보다 큼직하고 통통해졌고, 코가 짧고 오뎅하고 코끝이 굴곡된 예쁜 모양이 아니라 좀더 크고 몽툰하며 인중이 다소 두드러진 것은 달라진 것으로 선운사 금동지장보살상과 친연성이 있다. 또한 14세기 중엽 불상인 1346년 작 문수사 아미타상도<sup>14</sup>이나 장곡사 약사불상도<sup>13</sup> 계통과는 약간 다르며, 13세기 후반기 불상인 봉림사 아미타상도<sup>11</sup>과 1274년 작 개운사 아미타불상도<sup>10</sup>과 거의 동일한 것으로 왼쪽 어깨에서 내려진 大衣 깃과

<sup>16</sup> 문명대, 「고려 13세기 조각양식과 개운사 소장 축봉사 목아미타불상」, 『高麗, 朝鮮時代 佛教彫刻史 研究』(예경, 2003. 9), p.257 참조.

<sup>17</sup> 문명대, 위의 논문, p.258 참조.





도 15 수국사 아미타불상 얼굴



도 16 개심사 아미타불상 얼굴

상<sup>20</sup>보다 좀더 건장하고 탄력적이며 긴장미 넘치는 불상이어서 이들보다 앞선 불상이 분명하다. 이 불상과 근사한 불상은 1274년 작 개운사 아미타불상이나<sup>21</sup> 이보다 앞선다고 추정되는 13세기 3/4분기 초 전후의 봉림사 아미타불상과 전체적으로 유사하며, 13세기 중엽경의 개심사 아미타불좌상과 얼굴이 비슷하며 도 15, 16 그리고 심향사 아미타불상과는 Ω형 주름 등이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수국사 불상은 14세기 불상양식 이전인 13세기 중엽경의 불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복장에 봉안된 다라니에 적혀있는 己亥年 10월에 다라니를 시중 최중준이 만든 것이므로 그렇다면 불상도 이 해를 전후해서 조성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 같다. 13세기의 己亥는 1299년과 한 갑자 앞선 1239년(高宗 26년) 등이 있는데 이와 유사한 고종 연간의 불상이 밝혀진다면 13세기 중엽경의 작품으로 확실히 밝힐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최중준이 시중일 때면 己亥년은 1239년이 확실하다. 최중준은 1249년에 돌아갔기 때문에 최중준이 70세까지 생존했다면 1179년 생년이 되고 몰년이 1249년이므로 己亥는 생년인 1179년과 1239년 등 두 해에 해당된다. 그러나 시중일 때는 출생년경이 아닌 나이가 지긋한 해인 1239년이 확실한 것이다.

<sup>20</sup> 민영규, 「長谷寺 高麗 鐵佛 腹藏遺物」, 『人文科學』 14 · 15합집(1966. 6).

<sup>21</sup> 문명대, 「고려 13세기 조각양식과 개운사 소장 축몽사 목아미타불상」, pp.243-260.

이 불상의 복장에서는 최초의 조성기가 없어서 불상 조성의 역사 이른바 조성사찰이나 조성사상, 작가나 후원계층 그리고 조성연대 등을 분명히 알 수 없지만 己亥 다라니의 자료에 의하여 몇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을 것 같다. 즉 조성연대나 시주층의 문제이다.

첫째, 조성연대는 다라니를 만든 1239년 이후가 분명하므로 조성 상한은 1239년이고 늦어도 최종준이 돌아간 1249년 이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적어도 13세기 중엽경 특히 1239년 작으로 보아야 좋을 것이다.

시주계층은 최종준 가문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고 추정된다. 1239년에 만든 다라니가 시중 최종준에 의하여 복장에 봉안된 것이 분명하다. 즉 “己亥侍中崔宗峻”이라고 다라니에 기재했다는 것은 불상을 조성하고 이를 위해 복장용으로 다라니를 일부러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때문에 불상 조성도 최종준이 참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따라서 그가 시중일 때 이 불상이 조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순리이며 아울러 최종준과 그 일족인 철원 최씨 가문이 불상 조성에 관여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된다. 그 외 더 많은 시주자들이 있었겠지만 현재로서는 잘 알 수 없고 최종준과 그 가문은 최대 시주자였을 것이다. 따라서 이 불상의 작가나 정확한 조성연대는 명기되어 있지 않지만 적어도 최종준과 그 일족 등이 시주자가 되어 1239년 이후 1249년 최종준의 졸년 이전에 조성되었다고 생각되며 더 좁힌다면 복장봉안을 위하여 다라니를 조성한 1239년에 불상도 조성되었을 것이다.

이 불상과 관련 있는 중국불상은 거의 발견할 수 없지만 굳이 거론한다면 大同善化寺大雄寶殿 五方佛像들(金, 12세기 중엽: 1128-1143년)과 비슷한 불상들로서 통통한 얼굴, 근살진 턱, 왼쪽 어깨의 내림 주름과 Ω형 주름, 건장한 체구 등은 이 불상의 선구적 형태이며, 이와 함께 明昌 6년(1195년) 보살입상도 어느 정도 그 영향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四川安岳 華嚴洞 관음상들(宋, 12세기)과도 건장한 형태와 이국적인 얼굴 등에서 다소 비교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불상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불상은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sup>22</sup>

---

<sup>22</sup> 金維諾·羅世平, 『中國宗教美術史』(江西美術出版社, 1995), pp.176-179 참조. 필자도 선화사 와불상을 여러 번 조사한 바 있다.

## V. 腹藏品の 내용과 특징

수국사장 목불상은 현재 대웅전에 봉안되어 있는데 원래 철원 深原寺에 봉안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西方敎主 아미타불상이다. 만약 심원사에 봉안되어 있었다면 수국사로 이안된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심원사가 폐사되어 모든 불교미술들이 흩어지던 6.25 때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 불상의 복장은 근래에는 일제 때와 전 주지 때 두 번 개비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옛날 전통적인 복장의식에 의하여 복장이 봉안된 것은 첫 조성 때 이래 여러 차례라 생각되는데, 현재의 복장 내 상황으로 보면 처음 조성된 후 두 번에 걸쳐 改金重修된 것은 확실하며 그 후 한 차례 더 있었고, 근래에는 일제 때, 최근에는 전 주지 스님 때 등으로 보인다. 앞의 조성배경에서 언급했다시피 1389년의 개금기와 1562년의 개금기 등 두 번의 개금기에 의하여 개금중수한 내용은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현재 남아 있는 복장품을 보면 1562년의 개금중수 때의 것이 대부분이고 조성 때와 첫 개금중수 때의 복장품은 거의 남아 있지 못한 것 같다. 그러나 조성기 때의 복장인 다라니와 후령통은 남아 있고, 1차 개금기 때의 개금기도 남아 있다<sup>17, 18, 19, 23</sup> 이를 표로 정리해보겠다.

### 1. 改金 發願文

改金記나 發願文에 대해서는 조성배경에서 어느 정도 언급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미진한 부분만 간단히 논의하겠다. 첫째, 조성 때의 기록이라고 생각되는 다라니는 己亥年이 1239년이라 추정되므로 이 수국사장 아미타불상은 1239년경에 처음 조성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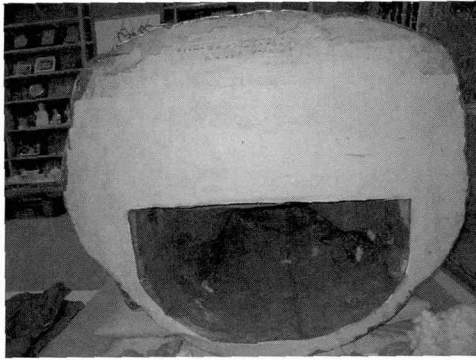
둘째, 1차 개금중수는 고려 최말인 1389년에 이루어졌는데 당시까지는 아미타삼존불이었던 것이 개금기에서 확인되지만 2차 개금중수때인 1562년에는 본존 아미타불상만 있었을 가능성이 짙다. 1562년의 개금기에 있는 2명의 대시주 가운데 첫째인 신사지가 별도의 발원문을 남

<sup>23</sup> 우리나라 불상의 복장내용을 복장 봉안 의식경들과 연관시켜 조사연구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부터였다고 할 수 있다. 민영규, 앞의 논문, pp.237-247; 문명대, 「洪城 高山寺 佛像의 腹藏調査」, 『考古美術』 9-1(1968. 1), pp.366-367 참조.

종류	명칭	연대	크기	형태	내용
造成改金發願文	全身舍利寶篋印 다라니	1239년	16.5×20cm		一切如來全身舍利寶篋眞言 己亥十月日侍中崔宗峻
	洪武22年 改金記	1389년	25×20cm	사각형	무량수, 관음, 세지 개금
	嘉靖42年 改金記	1562년	18×20cm	사각형	무량수불 개금
	嘉靖41年 發願文	1562년	96.5×30cm	직사각형	
腹藏舍利	舍利 7과		0.2cm		
	후령통과 부속		길이 11.4cm 경 1.4cm	원통형	
	황금색 후령통 보자기		15×16cm	사각형	
	구슬		3점		청색(0.9cm), 흰색(1cm), 붉은색(0.8-0.4cm)
	황금색 방울		3점(2cm)		
	오약, 오향, 오곡 등 五寶瓶				노란 보자기에 싼 복장
옷과 직물	모시저고리(적삼)		128×50cm		金氏保体 묵서
	삼베(안동포)		54×35.5cm		慈恩加伊銀瑜 묵서
	삼베		714×32cm	1필	性仁施納 묵서
	삼베실			4몽치	
	모시실			1몽치	
	오색실(명주)			1몽치	
	보자기		30×12cm	19점	織金羅 포함
	직물		10.5×7cm	10점	
	명주		90×15cm	1	英盒茶方石伊佛好難加目大難金
금박묵서류	금박종이		9.6×9cm		
	묵서종이		5.6×5.6cm	삼각형 5매	丁教善, 於大伊 2매, 竹伊 2매
	묵서종이몽치			20매	嘉靖四十二年壬戌八月初八日 還座

종류	명칭	간행연대	크기	판본	내용
佛經	金剛般若波羅密經 오가해권下	1457년 인출	36.7×23.8cm	금속활자본 포배장본	永膺大君, 金守溫 發願
	妙法蓮華經 卷4	1422년간	28×16cm	목판본	大功德主 孝寧大君, 면계량, 함허당 발문, 能惠 묵서

佛經	千手千眼觀自在菩薩如意眞言 (오대진언)	1485년	25.3×17.3cm	목판본	學祖發願, 1562 能惠 묵서
	地藏菩薩本願經 中卷	세종연간	32.2×18.8cm	목판본	1562년 熙暹施納, 孝寧, 安平大君 發願
	法華經 1-3권, 1冊	1541년 심원사	30.2×18.8cm	목판본	大施主 姜希亨, 寶蓋山 深原寺 철원
	法華經 4-7권, 1冊	1541년 심원사	30.2×18.8cm	목판본	
	密教大藏 卷9	14세기	30×15.8cm	목판본 호접장본	教師福泉, 住持學林施納
	阿毗達磨大毗婆沙論 17, 18, 144, 145, 146 6권 6첩	14세기 원판대장경	30.5×11.3cm	목판본 절첩본	中德前光明住持成祥 묵서
	불설장수멸죄 호세동자다라니경	14세기 元판	24.8×19cm	목판본 절첩본	性仁施納 묵서 禮拜圖變相
	蓮經別讚	1524년	26.8×18.3cm	목판본	경상도 문경 쌍룡사 개관 性仁比丘 시납
	蒙山和尚法語略錄	1525년	29.8×19.8cm	목판본	1525년 황해도深原寺開板, 大施主昌敏, 刻手, 義安, 義浩
	法華經 卷1(1-3권)	세종대간행 1562년	28×16.2cm	목판본	左議政李貴崙, 嘉靖42年 能惠 묵서
	약사유리광여래본원공덕경 2책	1528년 간행 1541년 인출	29.1×19.2cm	목판본	1528년 광주 봉은사 개관 1541년 深原寺에서 인출 1562년 熙暹施納 묵서
	華嚴經 卷36	14세기 원판	32.2×12.4cm	목판본 절첩본	원판
	佛頂心觀世音菩薩大陀羅尼經	14세기 원판	24.8×8.8cm	목판본 절첩본	性峻 묵서
	佛說摩利支天菩薩陀羅尼經	14세기 원판	20.6×9.2cm	목판본	원판
	예수시왕절제의찬요	1577년 개간	34×23.5cm	목판본	1577년 서산 보원사 개관 雍正四年丙午 묵서
陀羅尼	精靈 符作 날장		32.5×33.5cm	목판본	
	全身舍利寶篋印陀羅尼經		30×15cm	목판본	
	일체여래전신사리보협지언 송불오살마		37×37cm		
	염송권유		14.5×59.5cm		
	일체여래전신사리보협진언 四件都合印		37×39cm		
	각종 다라니, 만다라			목판본	다수
근복 현장 대품	사리병 등				
	감은사사리기형 사리기				전 주지사 제작봉안



도 17 수국사 목아미타불좌상 밑면



도 18 수국사 목아미타불좌상 복장내부

기고 있는데 발원문에서 개금중수한 때를 가정 42년이 아닌 41년으로 기록하고 있어서 개금 중수 발원문이 가장 정성들여 쓴 것으로 판단된다. 壬戌年은 가정42년이 아니라 41년이 분명하므로 2차 중수 개금한 때는 1562년(조선 명종 17)이니 다른 여러 복장품에 42년으로 기록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sup>24</sup>

## 2. 腹藏舍利 도 20, 21, 22

이 복장에는 사리 7과가 있다. 대개 우유색인데 0.2cm 내외로서 전형적인 사리이다. 이 사리가 들어 있었던 후령통이 있는데 길이가 11.4cm이고 직경이 1.4cm인 매우 가는 후령통이어서 조선후반기 후령통과는 다른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후령통

을 찢 보자기도 있고, 이와 관련된 구슬, 방울도 남아 있으나 모두 유리된 채 원래의 형태대로 되어 있지 않다. 특히 노란 보자기에 찢 복장물이 잘 남아 있다. 이 복장은 복장의 필수품으로 통상적으로 후령통 안이나 밖에 배치하는 것인데 이 불상의 경우 보자기로 싸서 단독



도 19 수국사 목아미타불좌상 복장품

<sup>24</sup> 경기 화성 鳳林寺 목아미타불좌상도 조성 이후 1362년과 1583년 두 번에 걸쳐 개금했다는 개금기가 남아 있어서 개금시기의 관련성을 알 수 있다. 문명대, 「봉림사 목아미타불상」, pp.198-205.



도 20 후령통 등



도 21 사리



도 22 오약등 사리내용

으로 봉안하고 있는 것이다. 모두 愼思智가 삼가 봉안한 것으로 발원문과 관계 있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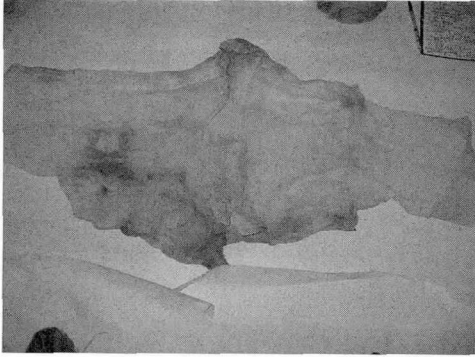
한지에 “五藥類”라 쓰고 “愼思智謹封”이라 묵서하였는데 안에는 한약 봉지 4개를 각각 문종이로 싸고 있으며 이 봉지 표면에는 “化主 比丘尼 守察 清信居士 妙等謹封”이라 묵서하고 있다. “五香類”, “愼思智謹封”을 두 가지 종이로 찢아 위에다 묵서하고 그 밖에 노란색 명주 보자기로 마감하고 있

다. 五芥, 六麥 각 1봉지씩 있으며, 麻子 綠豆 즉 삼씨와 녹두씨 각 한 봉지씩을 싸고 “愼思智謹封”이라 묵서했으며, 稻穀, 稷子 각 한 봉지씩 싸고 있는 것이다.<sup>25</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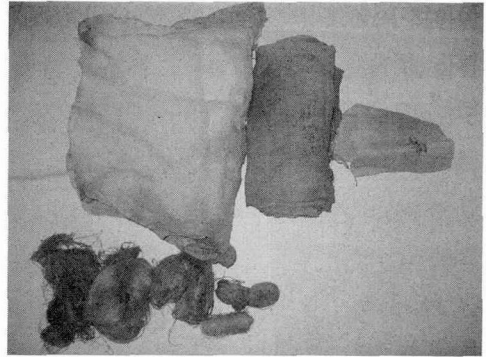
### 3. 옷과 직물<sup>23, 24, 25, 26</sup>

복장에는 윗옷 저고리 1점과 직물 종류, 실 종류들이 다량 들어 있다. 첫째, 모시로 된

<sup>25</sup> 「諸佛菩薩腹藏壇儀式」, 『造像經』 楡岾寺本(1824) 참조. 이외에 복장의식에 관한 의식경은 다음과 같은 책을 참고할 수 있다. (佛說父母般若波羅密多大明觀像儀軌, 大正藏1152, 宋施護譯, 蠶法集, 1792刊. 腹藏喉鈴八葉筒銀合內所入諸物第抄錄, 唐節要點眼法, 佛腹藏所安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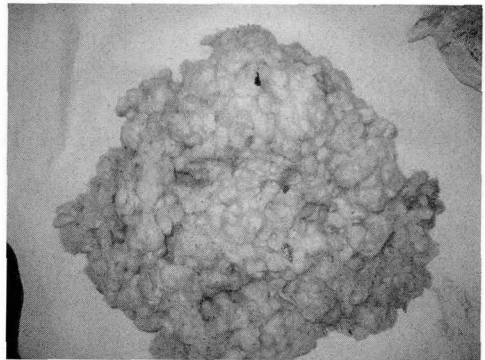
도 23 저고리



도 24 삼베와 실



도 25 각종 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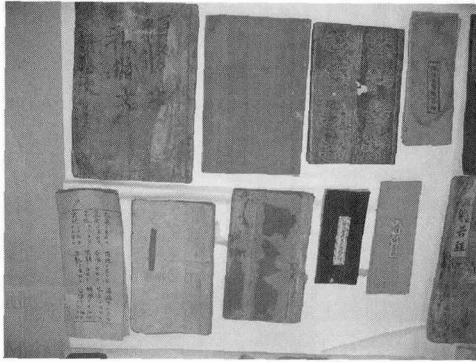


도 26 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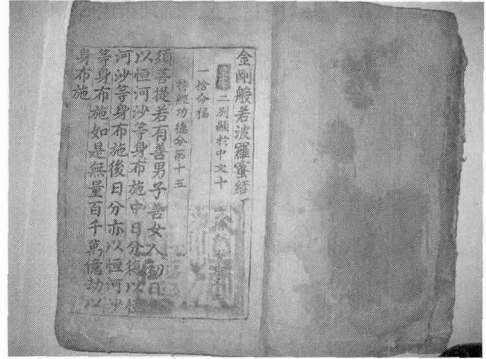
여자 윗옷인 모시저고리 1점이 거의 손상 없이 발견되었다. 팔 소매를 펼친 너비가 128cm이고 목깃에서 아래 끝단까지가 60cm인 아담한 크기의 적삼이다. 통상의 재단법이 아닌 독특한 재단법으로 만든 저고리로 주목된다. “金氏保体”라는 목서가 쓰여 있다.<sup>26</sup>

둘째, 안동포에 가까운 고운 삼베와 다른 삼베 한 필이 있다. 뒤의 삼베는 폭이 30cm이고 길이가 714cm나 되는 꽤 큰 뭉치인데 밖에 “性仁 施納”이라는 목서가 쓰여 있다. 성인스님은 불경 등 많은 복장물을 시납하고 있어서 주목된다. 이와 함께 삼베로 된 실이 꽤 큰 뭉치

<sup>26</sup> 조선 전기 불복장 의복과 천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참조할 수 있다. 김영숙, 「조선전기 직물의 한 양상—혹석사 아미타불 복장유물을 중심으로—」, 『문화재』 27(문화재관리국, 1994, 12), pp.127-156; 문명대, 「上院寺 文殊童子像과 腹藏遺物」, 『上院寺』(상원사, 1984).



도 27 각종경전



도 28 금강반야바라밀경, 1457년

로 남아 있고, 모시실 한 뭉치와 오색실도 한 뭉치 보이고 있다. 또한 목화도 한 뭉치 있는데 당시 목화의 귀중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예로 주목된다. 목화가 발견된 예는 봉림사 복장 등 외에 이런 큰 뭉치는 처음이라 생각되므로 우리나라 목화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셋째, 명주직물이 있는데 길이가 90cm, 폭이 15cm나 되며 울이 고운 편으로 여기에는 “英畚茶方石伊佛好難加目大難金”이라는 목서가 있다. 작은 보자기도 25점이 한 뭉치로 되어 있고, 작은 비단직물의 쪽(10.5×7cm)도 10점이 겹쳐 있다.

#### 4. 금박, 목서류

금박 종이와 목서류도 다량 보인다. 종이에 금박을 바른 금박종이가 있는데 9.6×9cm 크기이다. 이 외에 목서 종이가 두 뭉치나 되는데 한 뭉치는 삼각형으로 된 종이에 목서가 쓰인 5매(丁教善, 於大伊 2매, 竹伊 2매)인데 크기는 5.6×5.6cm이다. 한 뭉치의 목서는 20매로 이루어진 것인데 “嘉靖四十二年壬戌八月初八日還座”라는 목서가 보인다.

#### 5. 佛經類 도 27

이 불경들은 대부분 조선 초기의 것이고, 고려본과 중국본도 있어서 불경 연구에 매우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불경은 주로 목판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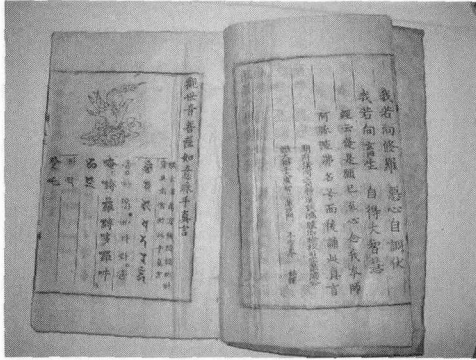
- ① 금강반야바라밀경 1책인데 1457년에 개판되었고 영응대군과 김수온이 참여한 경으로 금속활자본처럼 매우 정교한 편이다 도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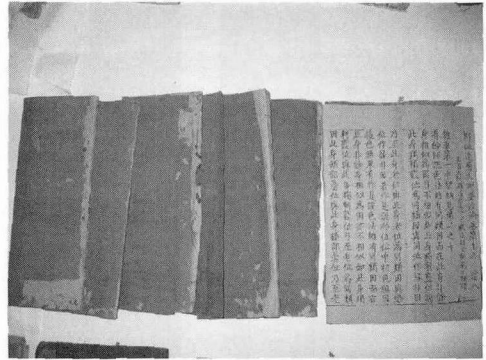
도 29 법화경 권4, 1562년

도 30 법화경, 154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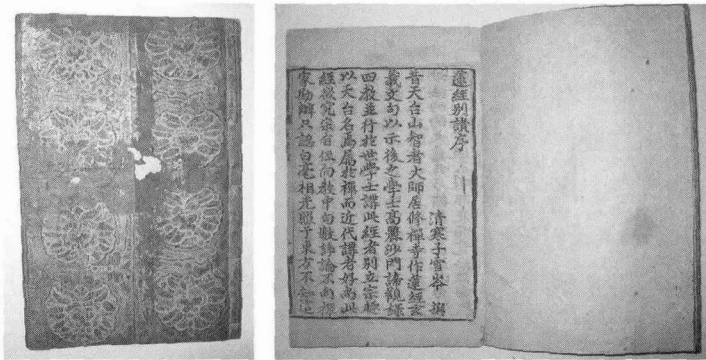
- ② 법화경 권4, 1책인데 대공덕주는 효령대군으로 1422년 간행되었고 1562년 개금 때 쓴 것으로 “能惠”라는 목서가 있다. 이 정도 정교하여 금속활자처럼 보인다도29.
- ③ 천수천안관자재보살여의진언인데 1486년(成化22년)에 학조스님이 발원한 진언으로 1562년 개금 때의 시납자, “能惠”라는 목서가 보인다도33.
- ④ 지장보살본원경(中卷)은 효녕, 안평대군이 발원한 15세기 개판본이나 1562년에 熙暹이 시납한 것으로 刻手는 正心이다.
- ⑤ 법화경 2책(1-3권1책, 4-7권1책)은 1541년에 深原寺에서 개판한 것으로 대시주는 강희령이다도30.
- ⑥ 밀교대장 1책(권9)은 14세기 판인데 교사 복천과 주지 학림이 시납한 것으로 당시 밀교와 밀교대장경 목록의 내용을 알 수 있는 목판 불경으로 크게 중요시된다.
- ⑦ 이미달마대비바사론 6권(17, 18, 88, 144, 145, 146)은 ‘中德前光明住持成祥’이라는 목서가 보이는 중요한 논서이다. 14세기 원판으로 크게 중시된다도32.
- ⑧ 불설장수멸죄호제동자다라니경 1책은 변상도(예배도)가 있는데 14세기 元판으로 “性仁 施納”이라는 목서가 있어서 1562년에 시납된 것으로 생각된다도34.
- ⑨ 연경별찬은 1524년 간행된 것으로 性仁比丘의 목서가 있어서 역시 1562년 시납된 것으로 판단된다. 표지는 고려 금은자사경과 동일한 金泥華文이 그려진 표지인데 고려 금자사경의 표지를 사용한 것인지 이 책을 위해서 별도로 제작한 것인지는 불명확하나 비전문가가 제작한 상태로 보아서는 고려 초창 때의 복장품 가운데 훼손된 금자사경 표지를 이용해서 제작한 것이 아닌가 한다도33.
- ⑩ 몽산화상법어약록은 1525년 황해도 심원사에서 개판된 것인데 대시주 창민, 각수로 의안, 의호 등이 참여한 것을 알 수 있다.



도 31 천수천안관자재보살여의진언



도 32 아미달마대비바사론



도 33 연경별찬, 1562년

- ⑪ 법화경 1책(권1-3)은 세종 연간의 간행으로 좌의정 이귀령이 발원한 것인데 1562년에 能惠가 시납한 것이다.
- ⑫ 약사본원경 2책은 1541년에 심원사에서 개판한 것인데 1562년 복장품으로 희섬스님이 시납한 것으로 “深原寺 熙暹施納”이라는 목서가 기재되어 있다.
- ⑬ 화엄경 1책(권36)은 14세기 원판이다.
- ⑭ 불정심관세음경도 14세기 元판인데 “性峻”이라는 목서로 보아 성준스님이 시납한 것으로 보인다.
- ⑮ 불설마리지천 다라니경 1책도 14세기 元판인데 의식과 관련된 중요한 불경으로 중시된다.
- ⑯ 법화경 1책(권6)도 조선 후기 개판된 것으로 생각된다.
- ⑰ 예수시왕경 1책은 1577년 개판된 것으로 1726년에 시납된 것인데 ‘雍正四年丙午’라

는 목서로 보아 이때 복장에 봉안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 당시 불상 개금이 한 번 더 이루어졌을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도 34 불설장수멸죄호제동자다라니경, 1562년

## 6. 陀羅尼

다라니는 복장품을 감싸고 빈 곳을 매우 는 역할도 하고 있어서 그 독특한 주술성과 함께 복장의 필수품으로 애용되고 있다. 수 국사 복장에도 많은 양의 다라니가 봉안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4점만 우선 선정했다.

- ① 여래전신다라니
- ② 전신사리보협인다라니경 다라니
- ③ 다라니
- ④ 전신사리보협진언다라니 등인데

특히 ④의 전신사리보협진언다라니는 이미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편년과 발원자도 알 수 있는 명문도 판각되어 있어서 중요시된다. 즉 “一切如來全身舍利寶篋眞言 己亥十月日侍中崔宗峻”이라는 명문은 이 다라니가 시중이라는 관직의 변천상 1239년으로 추정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보여지는데 이 점은 양식적 특징과 함께 1239년에 이 불상을 조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 VI. 高麗 後期 彫刻史에서의 의의

守國寺藏 深原寺 아미타불좌상은 고려 조각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첫째, 수국사 아미타불상은 다라니에 있는 명문에 보이다시피 1239년 이후에 조성된 불상으로 판단되는 대표적인 13세기 중반기 불상이라 할 수 있다. 13세기 후반기 불상의 대표적인 예는 1274년 작 개운사장 축봉사 목아미타불상과 이보다 약간 앞선다고 생각되는 봉림사 목아미타불좌상과 개심사 목아미타불좌상, 자운사 목아미타불좌상, 그리고 심향사 건칠 아미타불좌상 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수국사불상은 개운사불상, 봉림사불상과 함께 13세

기 중반기 3대 목아미타불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고려 조각사 편년 연구에 주목되는 불상으로 크게 각광받아 마땅할 것이다.<sup>27</sup> 아울러 가장 이른 최고(最古)의 목불상(木佛像)의 하나로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sup>28</sup>

둘째, 이 불상은 지역 유파를 연구하는 데도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13세기 중반기에서 14세기 후반기까지 중요한 불상들은 대부분 충청도와 경기도 남부 지역에 걸쳐 분포되고 있어서 中部流派라 할 수 있는데 이 불상은 개성 인접한 철원에 봉안되고 있어서 중앙유파라 할 수 있으므로 수도 개성에서도 이런 초기 단아양식의 불상이 조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개성의 불상들은 거의 없어졌지만 민천사 불상, 적조사 철불좌상 등과 함께 이 시기의 개성 인근 불상들을 조사한다면 중앙유파의 성격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고 충청일대의 지방유파와도 그 연관성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셋째, 이 목아미타불상은 無量壽佛, 즉 아미타불상이다. 고려 후반기의 불상 가운데 상당수가 아미타불상인데 이 불상도 아미타불상이어서 당대의 불상 성격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 대표적인 아미타불인 봉림사상, 개운사상, 심향사상, 문수사상 등과 함께 당대를 대표하는 아미타불상이다. 1389년의 개금기에 의하면 이 불상은 무량수불, 관음·대세지 보살상 등 아미타삼존불상이었는데<sup>29</sup> 조선 때인 1562년의 개금중수기에는 무량수불만 기록되고 있어서 협시상들은 이미 없어졌는지도 모른다. 어쨌든 이 심원사 목아미타불상은 개금기에 있다시피 서방교주로 조성되어 크게 신앙되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당시의 신앙경향과 불상 조성 사상을 이해하는 데 이 불상은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이 불상의 복장은 뒤죽박죽되어 있어서 일정한 체계가 없지만 이들을 모두 모아 분류해보면 복장 봉안의 변천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1차 개금중수 때(1389년)의 복장으로는 개금중수기 1매는 확실하지만 나머지는 잘 알 수 없다. 비단 직물 가운데 일부가 이 시기의 것일 가능성도 있다. 2차 개금중수 때(1562년)의 복장은 현재 남아 있는 거의 대부분의 복장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당시 복장의 시주는 愼思智이며 불경들은 스님들의 시주가 대부분이다. 옷이나 직물, 실, 목화 종류도 상당수 복장품으로 봉안되고 있는 것도 주목되는 점어서 앞으로 좀더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sup>27</sup> 문명대, 「고려13세기 조각양식과 개운사 소장 축봉사 목아미타불상」, pp.243-260.

<sup>28</sup> 문명대, 「고려후기 단아양식의 성립과 전개」, pp.206-242.

<sup>29</sup> 1389년 개금기에는 無量壽如來라 했지만 1562년 개금기에는 無量壽佛이라 적고 있어서 如來나 佛은 때에 따라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

다섯째, 이 불상은 고려 말의 충신 최영 장군의 직계인 철원 최씨 가문에서 대시주가 되어 조성했다고 생각된다. 즉 최영장군의 증조부이자 고려의 이름난 문신인 최유청의 손자인 侍中 崔宗峻이 대시주가 되어 불상을 조성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고려사는 물론 고려문화 연구에 이 불상은 상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 VII. 맺음말

지금까지 守國寺 木阿彌陀佛像에 대해서 몇 가지 점을 밝혀보았다.

첫째, 아미타불상의 조성배경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 불상을 조성, 봉안했던 사찰은 심원사일 가능성이 있는데 심원사는 철원 보개산에 있었으나 현재는 터만 있고 현재 중창불사 중이다. 이 사찰은 1239년 이후에 무량수불 삼존불상을 서방교주로 봉안하였고 1389년과 1562년에 개금중수했으며, 그 후 영·정조기에도 한 번 더 개금, 중수했을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

둘째, 수국사 아미타불상은 1239년 이후로 편년되는데 불상의 도상형식은 13세기 후반기의 도상특징을 모두 나타내고 있다.

셋째, 이 불상은 고려 후기의 단아양식 불상양식, 그 가운데 봉림사 아미타불상, 1274년 작 개운사 아미타불상 등 13세기 불상양식과 동일하면서도 색다른 개성 있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13세기의 3대 목불상으로 주목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힐 수 있다.

넷째, 수국사장 심원사 불상 복장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 몇 차례의 개금 복장의 변화과정을 살필 수 있었고 끝으로 이를 바탕으로 이 불상의 의의를 밝히게 된 것이다. 앞으로 좀 더 많은 자료를 찾아내어 13세기 불상의 전개과정과 14세기 불상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밝힐 수 있기를 기대해 마지않는 바이다.

\* 주제어(key words) \_\_ 수국사 목아미타불좌상(Suguksa Wooden Amitabha Buddha), 심원사(Simwonsa), 侍中 崔宗峻(Choi Jongjun, the State Minister), 개심사 목아미타불좌상(Gaesimsa Wooden Amitabha Buddha), 개운사 목아미타불좌상(Gaewunsa Wooden Amitabha Buddha)

▣ 투고일 2007년 7월 1일 | 심사일 2007년 7월 15일 | 심사완료일 2007년 8월 5일 ▣

## 국문초록

서울 은평구 수국사에는 1239년경 조성된 것으로 생각되는 고려 목(木)아미타불상이 봉안되어 있다. 원래 이 불상이 조성·봉안되었던 사찰은 철원 심원사로 알려져 있는데 조선조 말-한국전쟁 사이에 수국사로 이전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 불상은 1239년 당시 재상이던 崔宗峻(최영장군 증조부)이 시주하여 조성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복장발원문을 통해 1389년과 1562년에 각각 개금·중수된 사실이 밝혀졌다. 따라서 이 불상은 13세기 고려불상 가운데 제작시기가 이른 불상으로서 중요시되며, 제작 당시인 13세기 불상의 단아하면서도 다소 건장해진 양식적 특징을 보여 주는 대표작이라 할 수 있다. 복장에는 각종 사리기(후령통), 불교경전, 저고리, 비단천, 삼베, 목화솜뭉치, 다라니 등 고려후기에서 조선 전반기에 이르는 중요문화재들이 상당수 봉안되어 있어서 당시 불상 복장연구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시되고 있다.

## Abstract

# A Study of a Seated Wooden Amitabha Buddha Dated 1239 in Suguksa

**Moon Myungdae\***

At the Buddhist temple Suguksa in Eunpyeong-gu, Seoul, is enshrined a Wooden Amitabha Buddha statue presumed to have been made around 1239. It is known to have originally been created and kept in Simwonsa in Cheorwon, but was moved to Suguksa some time between the end of Joseon period and the Korean war.

The Buddha statue is presumed to have been made in 1239 with the donation by the state minister Choi Jongjun (崔宗峻), the great-grandfather of General Choi Yeong. A document kept inside the statue tells that it was gilded and repaired in 1389 and 1562. Therefore, it is important as one of the earliest Buddha statues from the 13th century in the Goryeo period. It is a representative example showing the elegant yet robust stylistic feature of Buddha statues of the 13rd century. The relics enshrined inside the Buddha statue include various important cultural objects from the late Goryeo through the early Joseon period such as reliquaries, Buddhist scriptures, garments, silk fabrics, hemp cloths, cotton wool, and *dharami* scripture.

---

\* President of The Art Histor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Professor Emeritus, Dongguk University